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8월 3일 (제 1317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가자! 기도원으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기도원에 오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설렐어요. 남들은 해외여행 간다고 난리들인데, 저는 기도원이 가장 좋아요.”

“목사님, 하루 6시간 목이 터져라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뿜 뚫린 것 같아요.”

“목사님, 영혼도 잘 먹여주시는데, 밥에 커피까지 무료로 주시니 너무 좋아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기도원 집회 때마다 나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다들 기도원에 오면 친정집에 온 것 같다고 한다. 집 떠나 타향살이하면서 마음도 몸도 많이 상하고 지쳐 있었는데, 기도원에 오면 영혼이 살아나고 몸도 편안해진단다.

그래, 모처럼 친정에 왔으니 맛있는 것을 아낌없이 줘야지. 그래서 나는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재료도 양념 아끼지 말고 맛있게 해라.” 당부한다. 자식에게 아낌게 무어람.

친정에 가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진수 성찬이 다가 아니다. 부모님은 당신들도 안 드신 보약을 한 재 꼭 달여 먹여주신다. 기도원에 오면 쇠약해진 영혼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보약 이상의 것을 먹인다. 하루 6시간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의 보약을 한 사발 마시니 영혼이 어찌 건강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거 아는가? 보약은 건강할 때 먹어야 약발이 있다는 것을. 병들었을 때 보약은 독이 된단다. 그러니 영혼이 건강할 때 보약을 마시자.

친정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것이다. 무탈하고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풍족하게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도 그것이다. 병들지 말고, 넉넉하고, 세상에 빛이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아닐까.

내일부터다. 8월 4일부터 2주간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여름산상집회가 열린다. 와서 영·혼·육의 건강을 되찾자. 부모님이 자식이 얼른 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듯, 하나님도 성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자.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다

태양이 뜨겁게 작열하는 여름, 예수중심교단의 여름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른다. 그 첫 포문을 여는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7월 28일부터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시작되어, 전국 각 지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속속들이 기도원에 모여들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전대미문의 수련회가 되어야 한다!”는 총회장목사님의 선포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교육부서 교역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모든 식사, 불거리, 놀거리 등을 전대미문으로 풍성하게 준비했다. 이러한 전

창조하셨는데, 나는 바로 이 창조의 법칙을 깨달아 성공했다. 나의 멋진 생각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너희들도 오늘 이 시간에 멋진 생각과 목표를 품기로 결단한다면 모두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서는 여러 과일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남의 것을 부러워 말고 내가 좋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개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하시며 10대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꿈을 품을 수 있는 도전정신을 심어주셨다.

새벽이슬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

고2 정지호 - 제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노력하여 그 분야에서 머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2 오윤아 -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하며 좋은 사람이 아닌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2 김소희 -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한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해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고3 박연준 - 매년 갔던 수련회였지만 또 새롭게 느껴진 수련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



2025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7월 28일~30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대미문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께서도 전대미문의 은혜로 이번 수련회와 함께해 주셨다.

첫째 날 저녁, 목사님께서서는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다(자유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잠24:5).

“지식은 아는 것인데, 지식을 갖춘 자는 수많은 러브콜을 받게 된다. 내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자며, 다음으로는 창조의 법칙을 아는 자들이다(창1:26).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는 이 청소년들이야말로 우리 예수중심의 미래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중2 윤시후 -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고1 김건하 -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 기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은혜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1 박예진 -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도 제 것을 찾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양한다는 게 너무 기뻐했습니다.

고3 이미영 - 명품 인생이란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제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바꿔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수련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한 예수중심의 청소년들이 이제 각 지역, 자신의 학교로 돌아가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총회장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가르침 대로 각 분야의 머리로 세워질 것을 진정으로 그려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별 생도**



아침제조



과일을 들고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사님



즐거운 저녁식사(야외식당)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8:16)

부정의 생각은 인생을 썹먹는 암이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만
들기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진흙
으로 고양이를 만들고, 어떤 아이는 강아
지를 만들고, 어떤 아이는 호랑이도 만들
었습니다. 왜 각기 다른 작품이 나왔느
냐? 그것은 ‘무엇을 만들까?’ 각기 다르
게 생각했기에 작품의 결과도 달라진 것
입니다.
인생도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어떤 사
람들은 인생은 운명이니 순응해야 한다
고 하지만, No!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생각’이라는 재료가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지
금의 나는 과거 내 생각의 결과물이고, 미
래는 지금 내 생각의 결과물이 될 것입
니다.
40여 년 전, 저는 ‘세계교구(世界敎區)’라
고 쓴 액자를 만들어 사무실에 걸어놓고
‘나는 세계를 교구화 하리라’ 마음먹었습니
다. ‘비록 지금은 광명 철산리 지하 교회에
서 목회하지만, 반드시 세계를 교구화 하
리라’ 다짐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망상 같
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
었습니까? 제 생각대로 세계 70개국에 넘
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메주 뵈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
로 제 생각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무슨 꽃이 피라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음식점으로 대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김치찌개가 맛있
으려면 김치가 맛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이 생각
이라는 재료로 만드는 작품일진대, 생각
의 재료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
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으로 작품을 빚으면 인생이 얼마나 멋지
고 아름답겠습니까? 왜 굳이 부정적인 생
각, 나쁜 생각, 추한 생각으로 인생을 빚
으려 합니까?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텐
데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
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8:5-6)
한 것입니다.
신발을 수출하는 어느 기업에서 아프리
카 진출을 위해 사원 두 명을 시장조사
차 현지에 보냈습니다. 이 두 명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 보고했습
니다. 그런데 두 명의 보고는 아주 상반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는 신
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
니다. 그러니 한 켤레의 신발도 팔 수 없
습니다.”라고 보고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엔 신발 신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한대로 팔 수 있겠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시
간에 봤건만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은 부
정적인 생각에서 보느냐, 긍정적인 생각
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는
아프리카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으니 어
느 사람의 의견을 수렴했겠습니까? 어느
사람을 아프리카의 지점장으로 추천하겠
습니까?
이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이 민수기에 나
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
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열 명은 돌
아와 말하기를 ‘거기 모든 백
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
는 스스로
보기에
도



총회장 이초석 목사

메
뚜
기
같다. 못
들어간다.’
고 했습니다. 그
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만은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부정에
동의했던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는 것은 성경을 통해 두루 알려진 사실입
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
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
편에 있느니라”(전10:2).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생각부
터 바꾸셨습니다.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
라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자한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
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뿔을 보게 하시며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주셨습니다(창15:5). 그 생각의 결
과로 이삭을 낳고,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
었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쓰시려 하자 ‘나
는 못해요. 다른 사람 쓰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였고,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생각을 바꾸
어주셨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1:34)라며 처녀의 몸으로
임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마리아에게
도 여호와의 사자는, “네 친족 엘리사벳
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
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
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1:36-37)
며 생각을 바꾸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
수를 수태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빼버
려야 합니다. 나
무가 썩은 것
은 뿌리
가 썩
었
기
때
문
이
고,
뿌
리
가
썩
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
을 뿐입니다. 그 나무를
살리려면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다
시 심어야죠. 생각이 썩은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세계 최대의 아쿠아리
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상어가 조그마한 물고기랑 같이 헤엄치
며 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을
생각조차 보이지 않는 상어를 보며, 어떻
게 그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
랬습니다. 이 상어를 며칠간 굶긴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련사가 상어와 물고
기 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을 친
답니다. 상어는 그걸 모르고 배가 고파서
물고기 떼에게로 달려들려고 하면 벽에
딱 부딪치는 겁니다. 이걸 수차례 반복하
다 보면 상어는 ‘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구나. 조련사가 주는 거나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어 벽을 제쳐해도 절대로 물
고기를 잡아먹지 않는답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
다. 보이지 않는 벽을 설치해놓고는 몇 번

부딪치게 하여 ‘나는 못하는 존재’, ‘해도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첫 사람인 아담에게 부정을 심어준 것이
마귀 아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을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
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하십니
다. “생각을 바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4:13).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비행기를 만들
고, 전기를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고, AI
를 만드는 것입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I can do it. 부정
의 생각만 빼버리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
리라”(시81:10) 하였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
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고도 하셨습니다. 생
각이 커야 큰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
다. 큰 생각이 큰 인물을 만들거든요. 찰
흙을 크게 떼야 큰 작품을 만드는 법 아
닙니까? 사람의 생각만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생
각은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와 다릅니다
(사55:8-9). 그러니 무엇인들 못하겠습
니까?
아프면 가족이나 친구가 병실에 병문안
은 올 수 있지만, 수술할 때는 혼자 수술
실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바꾸는 수술은
혼자 해야 합니다. 생각의 주인은 나이니
까요. 이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을 잘라내고 긍정적인 생각, 미래지향적
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큰 생각으로 바
꾸세요. 12년 동안 혈투증을 앓던 여인처
럼 적극적인 생각을, ‘가나안은 우리의 밥
이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
정적인 사고를,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었던 네 명의 친구처럼 창
조적인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결과입니
다(렐6:19).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운전자의 생각
대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오른
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갑니다. 인생
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는 인생
의 운전자인 내 생각대로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
는 성공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
니 만사형통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
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관용(寬容)

세상은 다양하고 서로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알박한 지식으로 자신과 다르다고 다 틀렸다고 단정 짓는 사람들은 천하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에 훼방꾼이 되고 맙니다. 아름다운 건물은 기둥이 숨겨져 있어야 하는데, 기둥이 사람들의 동선을 막고 있어서 부딪치게 된다면 결코 좋은 건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녹지 않고 씹히는 음식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일꾼은 다양성을 인정하며, 부딪치지 않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해야 합니다.

관용이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면 이해하지 못 할 일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꿈까지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공통의 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화할 때

도易地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모두 다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변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세상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작정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서로 공멸하지 않고 상생의 길을 가려면 상대방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원리적인 이단은 배척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며 이전투구를 벌이는 일은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과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골1:18).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훼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으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물고기 눈에 물이 보이냐?

구(舊)소련에서 신병들에게 무신론 교육을 시켰다.

한 장교가 나와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신병들, 저기 하늘을 보라. 신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렇다. 신은 없다! 있다면 눈에 보여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때 한 사병이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장교님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교님은 골빈 장교입니다.”

“.....”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은 어리석은 자다. 물고기 눈에 물이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물이 없고, 공기가 없다고 하는 자는 바보다. 그것이 있어 숨을 쉰다. 우리의 오장육부도, 우리의 생각도 보이지 않으나 그것에 의해 움직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사람에게 보이셨으며,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귀하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그대 청춘은 안녕하신가?

- 봉우 이초석 목사

청춘들이여, 그대 청춘은 안녕하신가?
청춘이 아름다운 건 꿈이 있어서다.
남들이 망상이라고 할 정도의 푸르른 꿈이 청춘을 아름답게 한다.
그런데 꿈을 잃어버렸다면?
청춘은 이미 탈이 난 거다.
꿈을 잃으면 도전도 없고,
열정도 없으니 청춘은 물 건너간 거다.
탄산 빠진 콜라는 설탕물이듯
현실에 안주하여 사는 나른한 청춘은 청춘의 옷만 걸쳤을 뿐,
그 청춘은 이미 녹슬었다.
그러니 청춘이 안녕하려거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81:10),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4:13)는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달려라.

청춘들이여, 그대 청춘은 안녕하신가?
혹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의 동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때니까~” 하며 방종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에게 전도자는 말한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11:9).
죄악으로 더럽힌 청춘은 누더기요, 누추할 뿐이다.
그러니 청춘이 안녕하려거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12:1)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일찍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아름답고 복되다.
해 아래 그보다 찬란한 청춘은 없다.

청춘은 나그네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부디 부락하건대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작은 불꽃은 바람에 꺼져도 큰 불꽃은 바람에 더 거세게 타오른다.
Thinking is beautiful, life is wonderful!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하나님, 환영합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아십니까? 자신이 ‘집에 귀가했을 때’ 가족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는지, ‘집을 나설 때’ 행복해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들고 귀가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심하고, 맨손이라도 좋으니어서 오기를 소망하고 기뻐한다면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어떠실지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 성경캠프, 산상집회 등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걸어오시는데, 이를 맞이하는 우리가 귀찮아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함을, 우리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니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축제들에 함께하길 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체를 자신의 집에 잠시 모셨던 블레셋 사람 오벰에돔이 온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삼하6:11),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이를 준비하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 기도로 준비하고 이끄시며 직접 말씀을 선포하실 총회장목사님, 때마다 물질과 먹을 것으로 후원해주는 분들의 선한 마음들, 무더위를 이기고 각종 봉사에 자원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손길,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도록 전도지를 나눠주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발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나라

를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교역자 및 교사분들의 헌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남모르게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숨겨진 중보자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체를 메고 오는 여섯 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 드리고, 찬양대를 조직해 온 힘을 다해 춤추고 나팔을 불며 환호했던 것처럼, 멀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환영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8:10).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2025 하계 산상집회

- * 시간 : 8월 4일(월)~7일(목), 8월11일(월)~14일(목)
- * 장소 : 장성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 02.533.9191

서울인천 연합 여름캠프

- * 날짜 : 8월 3일~5일
- * 장소 : 인천 예수중심교회
- * 문의 : 02.533.9191(지교회는 본부로 연락)

Good News

이 땅에는 8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백인, 황인, 흑인 등 다양한 인종들과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분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고,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 죽은 뒤에 좋은 나라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죄인의 모습은 생명이 없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삶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임 당하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 하는 가증한 자가 되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런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뇌졸중 초기증상 및 예방과 관리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으로, 발병 시 빠른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대표적인 초기증상은 얼굴이나 팔, 다리의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한쪽 시야가 흐려지는 시야장애, 균형감각 상실로 인한 보행 불안, 그리고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입니다.

이때 FAST 법칙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FAST(Face-얼굴 한쪽이 처지는가? Arm-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는가? Speech-말이 어눌한가? Time-발견 즉시 119 신고)를 기억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혈관 건강 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조절하고, 염분과 포

화지방 섭취를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 손상을, 과음은 혈압 상승을 유발하므로 금연과 절주가 필수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도 뇌혈관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류 개선, 혈압 안정, 항산화 작용, 뇌기능 강화를 목표로 약재를 사용합니다. 단삼(丹蔘)은 혈류 개선과 혈전 억제에 효과적이며, 홍화(紅花)는 혈액 점도를 낮춰 뇌혈류를 촉진합니다. 천궁(川芎)은 뇌혈류량 증가와 두통 완화에 사용됩니다. 체력이 약한 경우 황기(黃耆)와 당귀(當歸)로 기혈을 보충하고 혈관 탄력을 높입니다. 인지 기능 보호를 위해 석창포(石菖蒲)와 원지(遠志)

가 활용되며, 기억력 회복과 신경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약재는 복합 처방 형태로 사용되며, 맞춤형으로 조합해야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체질에 맞고 뇌혈관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물어보아 연하게 차로 마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초차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뇌졸중 예방뿐 아니라 초기 뇌혈관 질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여 주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거짓말과 관련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로 말씀하신 거짓말을 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짓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정체의 혼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인정의 욕구,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 등이 거짓말의 이유가 된다. 두려움이나 불안,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혼날까봐 생기는 자기방어의 마음도 한몫한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거짓에서 시작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자신도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른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은 큰 해악을 끼친다. 땅을 짓고, 거짓된 정보로 성도들을 현혹시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단순한 말실수나 나쁜 습관쯤으로 여기시지 않는다. 오히려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잠6:16~19). 죄는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며(요8: 44),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속성이라 하셨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의 결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계21:8).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키는 것이다(요일1:9). 거짓말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되고 한 번 익숙해지면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진실한 자를 높여주신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총회장 목사님처럼 “내가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라는 신앙 자세를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엡4:25).

양은정 생도
estheyang1126@gmail.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